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C,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가스선 부문 집중 심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앞으로 LNG와 LPG선 등 가스선 부문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외신에 따르면,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에 발송한 SO(States of Objection,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심사보고서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했다(선박뉴스)

영국 PEF, 대선조선 실사 돌입

영국계 사모펀드(PEF)가 2017년 이후 3년 만에 매각을 재추진하게 된 대선조선에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영국계 PEF는 10일부터 실사작업을 위한 가상데이터룸을 열고 자료 검토에 착수했으며 검토가 끝나면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3주간의 실사가 끝나면 이달 말 Stalking Horse(예비 우선매수권자) 계약을 맺을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법, "현대중공업 58억원 배상하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에 발생한 결함과 관련해 건조를 수행한 현대중공업이 국가에 58억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보도됨.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 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한 바 있음. 현대중공업이 2007년 12월에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하여 2011년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IMO to hold virtual CO2 talks in July, heeding calls of environmentalists

국제해사기구(IMO)가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를 7월 6~10일 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당초 3월 초 개최하기로 했던 회의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보도됨. 모든 회원국 및 NGO들이 모여 탄소 배출 관련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Offshore shipowners seek to refinance \$8bn in debt

Offshore 선주들이 최근 업황 하락으로 인해 80억달러 규모의 debt restructuring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됨. 해양시추업체들은 유가 급락에 따라 석유업체들이 E&P(Exploration and Production) 예산을 삭감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도됨. 특히 북해지역 시추시장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었으며 5월말 spot 운임이 역사적 저점인 하루 2,000달러에 근접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South Africa to form new national oil company

남아프리카 정부는 자국 석유&가스업체 3개를 합병하여 새로운 NOC(National Oil Company)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함. PetroSA, Strategic Fuel Fund, iGas가 합병할 계획이며 합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영업손실과 막대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보도됨. (Upstream)